

순환적 가치관에서 직선적 가치관으로: 해외독자의 기대를 반영한 *Please Look After Mom**

이 강 선
(성균관대)

1. *Please Look After Mom*이 거둔 성공

본 연구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2008)의 영역본인 *Please Look After Mom*(이하 PLAM으로 표기)이 해외시장에서 거둔 뛰어난 수용도의 근거를 특히 가치관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관련지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김지영이 번역한 PLAM은 2011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한국문학 작품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PLAM은 출간 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4위까지 올랐고, 2012년에

‘맨 아시아 문학상(Man Asian Literary Prize)’을 수상했다. 출간 당시 목표어권 출판시장에서 나타난 이 호응은 이후 반응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출간 7년째인 PLAM은 소설 공부 가이드 역할을 하는 ‘bookrags’¹⁾, ‘Supersummary’²⁾와 같은 사이트를 비롯, 독서클럽에서 리뷰가 지속되고 있다. 사서를 위한 사이트(‘RA For All’)³⁾에 실려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인데, 사서의 역할이 책 안내임을 상기할 때, 이 책에 대한 인식이 진지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의 의의는 한국 문학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면 드러난다. 한국어 사용 인구는 세계 언어 분포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세계 13위이며(2018년 4월), 사용 국가는 제 2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를 합쳐 6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세계어(lingua franca)인 영어는 101개 국가에서 사용되며 15억 명이 배우고 있다(Noack 2015). 따라서 정부(한국문화번역원)와 기관(대산문화재단)은 한국 문학의 영어역이 한국 문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타언어보다 더 영어로의 번역에 비중을 두어왔다⁴⁾. 그러나 2005년에도 영미권 출판사들은 한국문학에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⁵⁾, 가장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한해 출판물 중 번역물의 비율은 3퍼센트⁶⁾ 밖에 되지 않으므로, 낯선 한국 문학이 들어설 여지는 더욱 좁았다. 것처럼 좁은 판권을 뚫었으므로 이 작품의 수용정도는 더욱 의의 있는데, 본 소설은 번역되면서 초판 10만부를 인쇄했고, 현재까지 20만부라는 판매 부수로 나타났다.⁷⁾ 이전 한국 유명작가들의 3,000여부 팔린 데 비해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다.⁸⁾

1) 인터넷 주소: <http://www.bookrags.com/studyguide-please-look-after-mom/#gsc.tab=0>

2) 인터넷 주소: <http://www.2normal.com/redirect.php?id=supersummary.com>

3) Becky (2013) ‘BPL Book Discussion: *Please Look After Mom*, *RA for All* 21 August 2013. Web. 30 April 2018.

4) 2014년 한국문화번역원은 18개 언어로 110종을 출간했는데 그 중 20종이 영어역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총 14개 언어로 54권을 출판했고 그 중 12권이 영어역이었다.

5) 심성미, 「이규용 KL매니지먼트 대표 “해외선 장르 작품 인기인데… 국내문단은 B급 문학 취급”」, 『한국경제』2018년 7월 27일.

6) 로체스터 대학은 이 숫자(Three percent)에 세계 문학의 자원이라는 부채를 붙여 제목으로 삼고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를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심성미, 「이규용 KL매니지먼트 대표 “해외선 장르 작품 인기인데… 국내문단은 B급 문학 취급”」, 『한국경제』2018년 7월 27일.

8) 황인찬,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아마존닷컴 ‘베스트 10’」, 『동아일보』2011년 11월

* 순환적 가치관은 소설 속 주인공이 지닌 한국의 전통가치관(불교, 유교, 도교적 민간 신앙)이 한데 얽히고 어우러져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택한 명칭이다. 반면 직선적 가치관은 굳이 어떤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논리와 추론을 통해 밝혀낼 수 있으므로 택한 명칭이다.

현재 36개국에서 번역본이 나온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례로,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 또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나 PLAM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번역한 *The Vegetarian* (2015)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며, 2016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책 10권에 뽑혔고⁹⁾, 40개국에 번역판권이 팔린 상태지만¹⁰⁾ 현재까지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은 PLAM이 유일하다.

PLAM은 동양에서 태어나 서양으로 건너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현상을 여럿 보였다. 그 중 하나가 출간 당시 인터넷 아마존 서점에서 ‘이 달의 좋은 책’(The Bests of This Month)으로 뽑힌 일인데, ‘침대에 누워 읽거나 출퇴근하면서 읽을 책’이라는 의미(Hoffman 2017)가 담긴 이 호칭에는 언어의 자연스러움 외에 쉽게 읽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아무리 영어가 자연스러워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가치관은 단순히 낯선 항목들과는 달리 오랜 세월동안 쌓인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원본의 탄생 배경인 한국의 가치관과 영역본이 읽히는 서양의 가치관은 서로 달라 수많은 차이를 빚어낸다.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변용시켰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PLAM의 높은 성취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어 2018년 2월 현재, PLAM를 키워드로 한 연구는 총 49건(RISS 검색)으로 나타난다. 이 중 번역을 다룬 연구는 19건이며, 영어로의 번역을 다룬 연구는 11건이다. 윤선경(2013)은 「문학 번역 연구와 현황」에서 본 소설의 영역본 연구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윤선경이 정식으로 분석한 논문은 4개지만, 그 분류는 논문들의 성향을 논하기에

충분하다. 분류는 번역전략(자국화와 이국화)과 분석텍스트의 다양화(텍스트와 결텍스트), 출판사의 영향력, 번역평가 강조, 김지영의 번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소설 한권의 번역에 관해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PLAM의 수용과 평가’를 논한 정호정의 논문(2012), 그리고 영어권 서평을 분석한 이형진의 논문(2011)과 연관되는데, 이는 번역본의 수용과 서평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호정은 문화소에 집중, 한국 고유의 항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아 번역본 독자들이 지식을 확장할 수 없다고 논의한다(261). 정호정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전통 가치관이 번역본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가치관의 차이를 논한다. 가치관은 문화차이의 근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호정의 문화소 연구를 더욱 깊이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소설에 대한 평자의 의견은 극에서 극으로 갈리는데, 원본문화에서나 번역본 문화에서나 동일하다. 한국 서평은 책 뒷표지에 실린 “피붙이 식구들의 끈끈한 정”(백낙청)같은 극찬에서부터 역시 같은 뒷표지의 “세상 모든 자식들의 원죄”(이적), “가족 서사”(유희석 2009), “혈연 비판”(고봉준 2009)과 같은 다양한 평이 있고, “추석 명절에나 쓰고 폐기처분되는 일회용 서사”(조영일 2009)와 같은 혹평까지 존재한다. 아마존닷컴의 책 소개 페이지에서 살펴본 서평은 ‘가족의 정수’(Brooks)를 그렸다는 극찬에서부터 ‘모성의 본질과 희생’(Elle),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Bookpage) 등의 평이 있고, 라디오에서 방송된 ‘싸구려 통속 소설’(Corrigan 2011)과 같은 혹평까지 다양하다. 양쪽 서평을 살펴본 이형진은 평자들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다(2011: 307-308). 이러한 일치하는 결국 번역본이 독자에게 잘 수용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달리 표현해 번역자가 원본의 가치관을 변용해 대상 독자에게 원본 독자와 동일한 느낌을 주려했다는 의미다. 원본문화와 대상문화 사이에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번역자가 대상문화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형했거나 혹은 조종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두 문화의 차이를 연구한 니스벳(Nisbett 2003)의 이론을 활용하며, 한국의 전통적 사고에 관해서는 백과사전 및 한국인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에 관한 이론을 활용

10일.

9) ‘The 10 Best Books of 2016’, *New York Times* 1 Dec. 2016.

10) 한기호(2018), 책으로 번지는 ‘한류’ 민간 에이전트를 부탁해, 『엔콘텐츠: 콘텐츠의 진화』 한국콘텐츠진흥원. 6:36-37.

한다. 이어 문화체계모니와 관련해 주변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의 번역을 논한 프랑코 아이젤라(Franco Aixela 1996)와 카보넬(Carbonell 1996), 알바레즈와 비달(Alvarez, Vidal 1996)의 연구를 참고한다. 서사에서는 내러티브와 문화 인식을 다룬 하우스저(Hauser 1988)의 리뷰와 베이커(Baker 1998)의 연구를 참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문화체계모니를 논해 번역자가 취한 번역전략의 배경을 논하고, 이어 문화와 서사의 관계를 논해 문학 번역에서 가치관을 논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다음, 구체적으로 한국어본(Source Text: ST)과 영어본(Target Text: TT)에서 실례가 되는 문장들을 발췌해 위에 언급한 이론들을 적용해 양 문화의 가치관 차이가 어떤 식으로 변용되었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문학 작품 번역 및 출판 주체의 변화와 독자 수용성과의 관계를 논한다.

3. 문화 체계모니가 반영된 번역

3.1 번역과 권력

문학 번역은 문학을 다른 사회문화 환경으로 옮겨오는 일로, 그 과정에서 각각의 문화가 지닌 힘에 따라 그 속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도 동일하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는 충돌을 빚거나 삭제 혹은 수정됨으로써 공유하게 된다(Hauser 1988: 347). 번역자는 이 충돌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서사 속 문화, 정치, 문학이 대상문화에서 수용되거나 수용이 덜 되도록 (혹은 수용되지 않도록) 조작할 수 있다(Alvarez, Vidal 1996: 2). 주어진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문화적 체계모니다.

문화 체계모니는 원본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서사는 필연적으로 그 서사가 탄생한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Hauser 1988: 347), 어떤 사회라도 그곳에 태어난 개인의 대다수는 그 사회의 제도특질과는 상관없이 항상 사회가 지시하는 행동을 몸에 지니고 있다(Benedict 1934: 276). 따라서 옮겨온 환경에서 다시 서사를 짜야 하지만, 원본 텍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서사는 그 문화의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데(Baker 2009: 155), 이 과정에서 문화 체계모

니가 작용한다. 원본의 ‘타자성’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번역이 대상 문화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Alvarez, Vidal 1996: 2).

한국의 경우, 특히 영한본은 각종 주석과 해설을 동원해서 낯선 가치관과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며, 이런 태도는 진지한 소설뿐 아니라 흥미를 추구하는 대중 소설에서도 흔히 적용된다. 그러나 한영본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석과 해설 대신 문장 혹은 대상을 누락하거나 과감하게 변형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게 조정한다. 이 현상이 ‘균일화(homogenization)’로, 주변 문화가 주류 문화로 진입할 경우 주류 문화가 지닌 주변 문화의 민족적 전형에 맞추어 원본을 강화 혹은 수정하며, 문화는 재해석되고 조정되며 심지어는 전복을 거쳐 맥락으로 전달된다(Carbonell 1996: 80). 이처럼 번역가는 원본 텍스트를 조정하고 조작하여 특정 모델과 정확성 개념에 맞추어으로써 분명히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칭송마저 받는데(Alvarez, Vidal 1996: 2), 번역에서는 그 텍스트가 속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Tahir-Gurcaglar 2002: 44).

PLAM의 원본 텍스트 『엄마를 부탁해』가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감성과 한국인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베스트셀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의 선택으로, 문학적 가치와는 달리 독자 자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중적 감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을 갖는다(이형진 2016: 156). 따라서 지극히 한국적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쓰인 『엄마를 부탁해』가 번역되어 대상문화에서 수용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문화 변용의 정도가 궁금해진다.

3.2 서사와 문화

문화는 어느 하나의 전형에 속한다고 특징지을 수 없지만, 어느 특성이 더 강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한국 문화는 전형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 한국에서 집단주의는 생존 수단이었으며, 효율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 권위에 대한 복종과 집단 내에서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위를 중요시한다(송성자 1997: 4). 집단주의 사회는 “우리” 의식, 집단 동일시, 정서적 의존성, 집단 결속, 의무와 책임, 조화, 창피함 등을 강조하며(송성자 1997: 5), 이러한 특징을

지닌 한국적 가치관이 원본의 서사에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원본 서사에 담긴 가치관이 그대로 번역되면 다른 가치관을 지닌 대상 문화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번역본 독자의 수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일반 독자는 자신들이 알고 있어 준비가 된 것만 받아들이며,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대중 소설의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은 원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인다(Savory 1954: 18-22). 이들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텍스트를 읽으므로, 서사가 아주 낯설거나 다소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외면하기 마련이지만, 경험에 닿아있거나 논리(logic) 혹은 타당한 이유(good reasons)가 있을 경우 수용하게 된다(Hauser 1988: 347). 결국 보편적 가치관과 이해 가능한 열린 특성이 관건으로, 합리적 전개 혹은 진술이 서사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엄마를 부탁해』의 주인공은 20세기 초반(1938년)에 태어나 20세기 후반(2007년)까지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여인이다. 이 시기에 많은 남성들은 험난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방황했으므로 어머니들이 집을 지키고 자식을 가르쳐야 했다(정명교 2013, 24). 주인공의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전쟁 때문에, 이후에는 국악과 여자에 미쳐 가족을 팽개치고 나돌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아내에게 아랑곳 하지 않는다. 앓는 아내가 자신의 시중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에는 한국 남성이 가정을 등한시 하는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드러나 있다. 무책임한 가장인 동시에 남성우월주의자인 남편, 집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우는 아내, 이들은 전형적인 노년 부부인 것이다.

이 소설은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자식들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회상을 담고 있다. 자식 집에 가려고 서울에 온 ‘엄마’ 박소녀가 간발의 차이로 지하철을 놓친다. 박소녀는 치매를 앓고 있어 집을 찾아올 능력이 없다.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엄마’를 찾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회상을 거쳐 비로소 어머니의 모습을 깨닫는다. 어머니와 아내를 찾거나 기다리는 동안 각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가족 중 가장 수동적인 인물은 박소녀의 남편으로, 평생 박소녀를 고생시킨 장본인이지만 기다리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큰 딸인 지현으로 첫 장과 마지막 장은 그녀를 주축으로 전개된다.

이 이야기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엄마의 삶과 자식들의

죄의식이다.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이 헌신은 한국이라는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진다. 공감가는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에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생기도록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당대의 가치관이다. 인물들의 행동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 세계인에게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만든 것은 문화 특유의 가치관이지만, 번역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양 문화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것이다.

3.3 배경문화 변화와 가치관 변화

프랑코 아이젤라는 문화적 항목이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원본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제시된 항목이 대상언어로 옮겨질 때 주어진 항목이 대상언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가치(이념, 사용처, 사용빈도 등이 결정하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정의한다(1996: 57). 번역을 하기 전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번역할 때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프랑코 아이젤라가 존재의 차원에서 번역과 문화적 항목의 연관성을 논한다면 카보넬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제한성을 논한다. 근본적으로 번역은 아주 개별적이면서도 서로 연관된 공동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등가 이론, 비교 문학, 아이디어의 역사와 문화인류학 등의 개념의 범위와 의미가 맥락상 다소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Carbonell 1996: 79). 두 학자의 논의를 살펴보면 문화적 항목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겨나고, 그 차이 때문에 원본과 번역본이 투명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화적 차이를 빚어내는 것일까.

한국학 학자이며 번역가인 풀턴(Fulton)에 의하면 한 나라/민족의 문학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해당 민족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문화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전통적 가치관, 사고방식에서 발현하는 일이다(2015). 문화 차이를 빚어내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으로 결국 사고방식인데, 이런 일들은 시대에 따라 약해지거나 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남아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준이 다른 이들은 원본독자

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된다. 각 언어 혹은 국가적 언어 공동체는 각각의 관습과 가치판단, 분류 유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 이 사항들은 겹치지만 때로는 아주 다르다(Franco Aixela 1996: 53).

전반적으로 서양적 사고는 개인의 성격에 주목하고 동양적 사고는 상황, 전체 맥락에 주목한다(Nisbett 2003: 119). 서양인은 개인의 성격이 사건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며 주변 환경과 집단 내에서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동양인은 개인보다 집단 전체를 중요시 하고 집단 내의 역할을 강조하며(Nisbett 2003: 51),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 개인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면 집단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할을 중시하는 유교적 개념인데, 개인과 집단을 확장하면 개인은 그가 속한 계급으로, 집단은 전체 사회가 되고, 각자의 계급에서 역할을 잘 해내는 일은 불교의 윤회사상과 연관이 된다. 각자 지은 덕 혹은 업에 따라 다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후에 논할 민간 신앙이 추가된다.

이러한 전통가치관들은 주인공 박소녀에게서 잘 나타난다. 박소녀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문맹으로(ST 72), 평생 한 장소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왔다. 열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ST 181) 아이를 낳은 이후 줄곧 어머니로 살아왔다. 따라서 박소녀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주변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내고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집단주의는 아내로서의 여인, 어머니로서의 여인을 요구할 뿐, 개인으로서의 여인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의 결혼한 여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름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따라 ‘~댁’으로 불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아이의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개인보다는 가정이라는 집단 내의 역할로만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비교적 보수적인 농촌에서 이 역할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후대를 잘 키워내 사회를 존속하도록 하는 가정의 목적에 따른 역할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박소녀는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더 낮게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굳기 때문에 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서울에 정착한 큰 아들 형철에게 딸 지현을 맡긴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울역에 나온 그녀는 배웅 나

온 아들과 국밥을 먹는데, 소고기 건더기를 건져 아들의 그릇에 옮기면서 자꾸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때 하는 말에 한국인 고유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ST 1 엄마가 죄가 많다. 너에게 미안하다, 형철아.(110)

TT 1 “It’s all my fault. I’m sorry, Hyong-chol.”(103)

RT 1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형철아.

박소녀의 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가 많다’와 ‘미안하다’이다. 내 죄가 많아 너에게 미안하다는 의미가 된다. 박소녀는 비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곧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다. 젊은 시절, 남편은 국악을 한답시고 집을 나가 어쩌다 한번 돌아왔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양육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박소녀는 돈이 되는 건 무엇이건 했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는 죄가 끼어 들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왜 죄가 많다고 했을까.

이 말은 한국인 특유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한국인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황매향 2003: 491)라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자일뿐 아니라 가문의 출세와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자녀 교육 담당자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박선영 2016: 220)를 지고 있다. 이는 성공을 유난히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인의 집단의식에서는 경제적 부유함, 성공, 경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박노자 2017). 선행은 부와, 악행은 가난과 연결 되어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각 개인의 삶은 전생의 결과이고 현생은 후생을 결정 짓는다고 보는 것이다. 공덕이 업을 지우고 보다 나은 후생을 살도록 한다고 믿으므로 결과적으로 죄는 업(karma)과 연관이 있다. 아들에게 딸을 맡기고 가면서 초라한 처지를 새삼 깨달은 엄마가 자신의 죄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다.

번역자는 “죄가 많다”를 “all my fault”로 옮겼다. ‘죄’와 ‘잘못’은 다르다. ‘죄’란 양심이나 도리의 문제로 일생에 걸쳐 존재하지만 잘못은 틀리거나 그른 것으로, 어느 한순간의 일이다. ‘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치관이지만, 잘못은 행위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로서, 고치면 되는 일이다. 한국적 가치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죄’를 순간의 어긋난 행동인 ‘fault’로 옮긴 것은 딸을 아들에게

데려간 것이 잘못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죄’라는 표현은 박소녀의 남편 또한 사용한다. 큰 아들 형철은 엄마를 찾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낙망한 그의 눈에는 아내가 엄마의 실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아내와 다투자 방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 형철을 타이르는데, 아버지 또한 “내 죄”를 거론한다(ST 136). 이 역시 번역자는 ‘죄’를 ‘fault’로 옮겼고,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죄’가 한국사회의 집단 의식과 깊숙이 스며든 불교 의식을 보여준다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다툼을 말리면서 자신의 아내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아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T 2 나 만나 못하게 살었지만 덕이 많은 사람이게 살어는 있을 것이여.
살어 있으면 뭘 소식이 오지 않겠냐. (136)

TT 2 “...Your mom met me and had a hard life. But she is a kind person. So I'm sure she's at least alive.” (129)

RT 2 네 엄마는 나를 만나 어렵게 살았다. 그렇지만 친절한 사람이니 죄 소한 살아 있겠지.

‘덕이 많은 사람’이 ‘a kind person’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인에게 덕(德)은 행실이 바른 일로, 남이 보나 스스로 생각하나 바람직한 상태에 잘 부합하는 일이다. 원래 ‘덕’이라는 글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품고 가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 남을 해하지 않으려 하고 남을 이해하려 한다. 즉 ‘선행’과 ‘옳다’와 ‘바르다’, 그리고 ‘배풀다’가 이 덕이라는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엄마는 평생 타인에게 배풀며 살아왔다. 시동생의 학비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의 발뽀기를 팔려 한다거나, 아이에게 먹일 젓이 부족한데도 엄마를 잃은 아이를 외면하지 못해 젓을 물린다거나(ST 251), 자식들이 준 용돈을 십년간 모두 고아원인 소망원에 기부한다거나(ST 144), 매주 소망원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고아들을 돌보거나, 할머니 손에 자라는 이웃집 아이들에게 끼니때마다 밥을 먹여준다거나 하는 일(ST 164-165). 모두가 자신을 희생

하면서 타인을 위하는 좋은 일에 해당된다.

이런 선행은 업을 지우고, 덕을 쌓아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혹은 부자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불교에서 공덕은 내생에 좋은 과보를 받는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덕이 많은 사람이게 살어는 있을 것이여”라는 말은 박소녀가 공덕을 쌓았으므로 운명이 혹은 천지신명이 감동해서 그 보답으로 살려 주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친절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없다. 친절은 태도에 관한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는 데 그쳐, 남의 결점을 품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지경은 아니다. 따라서 친절과 덕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있다.

‘죄’의 ‘덕’은 박소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국인의 유교 및 불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그런가 하면 개가 죽은 대목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전통가치관이 드러난다. 엄마는 개가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

ST 3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배반을 하고 개는 거두면 보답을 한다고 안허디. 아무리도 그 개가 내 대신 갔는가봐야. (63-64)

TT 3 “They say that if you take in a person, he will betray you, and if you take in a dog he will pay you back. I think the dog went in my place.” (56)

RE 3 “사람을 거두면 배반 하고 개를 거두면 보답한다던데. 내 생각에는 개가 내 대신 간 것 같아.”

서양과 동양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다르다. 서양에서는 지성(이성)을 인간만의 특성으로 보지만, 동아시아의 유학사상에서는 도덕성을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본다(조공호 2003). ‘머리 검은 짐승’은 인간을 말하는 한국 고유의 표현으로, 한국인 혹은 아시아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머리 검은’과 ‘짐승’이 합쳐져 있다. 짐승에게는 머리칼보다는 털이 있을 뿐이므로, ‘머리 검은’ 동물은 바로 인간이라는 의미다. 짐승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하지 않지만 인간은 다르다. 그러므로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배신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동일하지만 머리칼 색깔은 인종에

따라 다르다. 한국인은 머리칼 색깔을 통칭해서 검다고 표현하므로 누구나 ‘머리 검은 짐승’의 의미를 알고 있다. 반면 서양인들의 머리칼은 갈색에서 금발, 붉은 머리 등으로 다양하므로, 말 그대로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옮기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역자는 이 구절을 ‘a person’으로 옮겨 순수하게 의미를 살려내되 한국 고유의 요소를 삭제했다.

또 다른 전승 가치관이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 있다. 개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고 있는 어머니는 그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ST 4 지난봄에 지나가는 스님한테 시주를 했더니 올해 식구가 한 사람 줄어들 해라고 안허냐. 그 말 듣고 마음이 뒤숭숭했다. 일년 내내 그 말이 걸렸어.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다가는 그때마다 밥을 먹겠다고 내가 쌀을 씻고 있음게 나 대신 개를 데려간 모양이야.(64)

TT 4 “Last spring, I donated money to a passing monk and he said that this year one member in our family would be gone. When I heard that, I was anxious. For an entire year I thought of that. I think death came to fetch me, but because I was washing rice to cook for myself every time, he took the dog instead.(66)

RT 4 지난봄 지나가는 스님한테 시주를 했더니 올해 식구가 한 사람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 그 말 듣고 걱정스러웠지. 일년 내내 그 생각을 했어. 죽음이 날 데리러 왔는데 내가 매번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고 있으니까 나대신 개를 데려간 모양이야.

한국인은 스님이 예언을 하거나 운명을 짚는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긴다. 예언이나 운명을 짚는 일은 무속적 성격이 짙지만 한국 불교에는 민간신앙이 혼합되어 있으며 무속신앙이 가장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이원규 2003: 105). 특히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농촌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긴다. 어머니는 혼절할 정도로 심한 두통과 암을 앓은 병력 때문에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데(ST 150), 미지의 존재가 3일이나 반복해서 어머니를 건드려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개가 죽었다. 묶어두었던 쇠줄을 풀고 개집에서 나와 변소 옆에서 죽은 것이다. 이 이상한 사건에 스님의 예언이 겹쳐지면서 개가 자기 대신 죽었다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원래 그 개는 비루먹은 상태로 떠돌던 개인데, 어머니가 데려다가 털에 윤기가 흐를 정도로 보살핀 것으로, 건강하

게 살았으니 고마워한다고 생각한다. 개의 죽음은 보은인 것이다.

『한국민족 문화대백과』나 『향토문화대전』같은 자료들은 예로부터 한국인은 무엇보다 보은을 중요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보은과 관련한 설화들이 생명력을 갖고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개의 이상한 죽음을 ‘보은’과 연결시킨 것은 이 관념이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현실적 도덕이었으므로, 마침내는 현실 사회에 응하게 되었으며 살아 있는 설화의 주제로까지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이다.

번역자는 ‘저승사자’를 ‘죽음(death)’으로 옮겼다. ‘저승사자’와 ‘죽음’의 역할은 죽는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저승사자는 원래 도교에서 불교로 유입된 존재인데 여기에 한국의 민속 신앙이 합쳐진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불화(佛畵)에서 저승사자는 군인(軍人)의 모습으로, 권위적인 한편 이승과 다른 저승세계를 안내한다. 이 존재는 사찰의 명부전에 그려져 있으며, 잘 대접받으면 수명을 늘려준다던가 하는 식의 보답을 한다는 전설이 있다. 민간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사자밥을 놓아두어 저승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하는데 이는 저승사자에게 인격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간적인 저승사자가 덕이 많은 어머니를 대신해 개를 데려갔다는 추측이 자연스럽다. 죽음에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도 문화적 속성도 없다. 그저 죽음일 뿐이다. 따라서 저승사자가 지닌 풍부한 문화적 특질, 무속신앙과 불교가 섞인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게 된다.

‘죄’와 ‘저승사자’가 불교 및 민속적 사고를 보여준다면, 뒷자리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유교적 가부장 사고가 강하게 드러난다.

ST 5 그때 가묘 세울 때 고모가 내 아래에 자리 잡으라 했을 때 내가 눈을 흘키며 아이구 죽어서도 고모 심부름 하게요, 했던 거.(249)

TT 5 Back then, when we were assigning grave sites and you said my plot should go on a site down the slope from yours, I glared and said, “Oh, so even when I’m dead I can do your errands.”(240)

RT 5 그때 우리가 무덤 자리를 결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나더러 당신 묘에서 한 단계 내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소. 나는 쓰아보면서 말했지. “그럼 죽어서조차도 고모 심부름을 할 수 있소.”

가묘란 임시 묘로, 죽어서 묻힐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곳이다. 시누이는 박소녀

에게 자신의 묘 아래에 자리 잡으라고 말한다. 좋은 장소지만 박소녀는 반발한다. 자리는 곧 서열을 말한다. 가부장제인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집안의 며느리는 가장 서열이 낮은 존재다. 시누이는 평생 올케를 감시하고 남동생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올케는 하녀정도로 여겨 왔으므로 박소녀에게 시누이는 일면 시어머니보다 더 억압하는 존재다. 그런 박소녀의 생각이 ‘심부름’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는데, 심부름은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일이다. 평생 그런 일들을 겪어온 박소녀는 죽어서까지 당신 시중을 들어야 하는 말로 억눌러 두었던 반발심을 표한다. ‘하게요’는 곧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필수고 강제지만, ‘할 수 있소’는 가능성이 있다. 강제와 선택의 차이인 것이다.

호칭에서는 한국의 집단주의를 읽을 수 있다. 관계망에서 개인의 위치로 인해 호칭은 물론, 그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의복과 같은 문화적 상징, 그리고 각자에게 허용되는 행동반경이 확연히 달라진다(김종길 2003: 86). 따라서 호칭에서는 책임과 기대, 권위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 다음은 엄마를 찾는 전단지지를 붙이다가 전단지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형철이 여동생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라고 할까 하고 묻는 장면이다.

ST 6 진이 엄마 보낼까?

올케는 쉬게 뒤. 아버지도 계신데. (129)

TT 6 “Should I have my wife do it?”

“Let her rest. She’s taking care of Father, too.”(123)

RT 6 “내 아내에게 붙이라고 할까?”

“그녀는 쉬게 놓아뒤. 아버지도 돌보고 있으니까.”

큰 아들 형철은 아내를 딸의 엄마라는 뜻으로 “진이 엄마”로 표현한다. 여동생은 오빠의 아내를 “올케”라고 칭한다. “진이 엄마”에는 딸의 존재가 포함되고 “올케”에는 오빠의 존재가 포함되면서 자신의 존재도 포함된다. 이 두 호칭은 모두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위치를 뜻하는 동시에 역할을 뜻한다. 엄마에는 책임감이 따르고 의무가 따른다. 이 호칭은 번역본에서 “my wife”로 바뀌어 자신과의 관계만 나타낸다. “올케”는 “she”로 바뀌어 호칭이 뜻하는 위치가 사라지고 개인만을 나타낸다. 다음은 기대를 나타내는 호칭이 바뀐 경우다.

ST 7 큰딸애가 또 비행기를 탈 모양이군. 네 눈에 눈물이 팽 돈다. 입술이 떨리는 것도 같네. 갑자기 네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애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잖어. 왜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다냐.(205)

TT 7 Chi-hon must be taking a plane again, Tears well up. I think your lips are trembling, too. You suddenly yell into the phone, “You’re all too much...too much!” Honey, you’re not that kind of girl. Why are you yelling at your sister? (197)

RT 7 지현이가 또 비행기를 탈 모양이군. 눈에 눈물이 고이네. 네 입술도 떨리는 것 같아. 갑자기 네가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너무 하느구나. 지나쳐!” 애야,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왜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니?

‘큰딸애’라는 말에는 맘이를 지칭하는 개념이 들어 있다. 엄마가 왜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는 말은 동생이 언니에게 마땅히 해야 할 존경과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원본에는 이런 배경지식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Chi-hon’은 한 개인을 가리킬 뿐이다. 큰딸과 언니라는 명칭에는 책임과 권위가 어우러지지만, 지현이라는 개인으로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ST에서 나타난 가치관들은 불교, 유교, 민간 신앙, 집단주의로 한국인의 의식의 저변에 있는 전통 가치관들인데 번역자는 이 전통적 가치관들을 변형하거나 삭제해서 옮겼음이 드러났다. ‘죄’와 ‘덕’, ‘저승사자’가 순환적 가치관의 예라면, ‘실수’, ‘친절’, ‘죽음’은 직선적 가치관의 예이다. ‘가묘’ 부분에서는 한국의 가부장제가 드러나지만 번역에서는 이 뉘앙스를 읽어내기 힘들다. ‘진이 엄마’와 ‘큰딸애’가 집단을 중요시하므로 나온 호칭이라면 ‘그녀’와 ‘지현’은 개인을 중시해서 나온 호칭이다. 동양의 가치관이 맥락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순환적인데 반해 서양의 가치관은 개별적이고 직선적이기(Nisbett 2003: 103) 때문에 이처럼 변화를 준 것이다.

4. 독자 수용성을 고려한 번역

엄마의 헌신적인 삶을 만들어낸 것은 한국 특유의 가치관이다.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녹아 있어 따로 구분하기도 어려워진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무속 신앙들이 어우러져 엄마의 삶을 빚어낸 것인데, 이러한 가치관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순환적이라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원본의 등장인물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 번역자는 번역본 독자가 그 배경에 깔린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긴 때문에 직선적인 가치관을 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바꾸었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한 어휘 대신 앞뒤의 연결 고리를 감안, 논리성을 중시하는 어휘로 바뀌어 의미가 보다 단순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문장과 문단은 나뉘거나 합쳐졌고 삭제 변형되기도 했으며 문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배치되기도 했다.

“흠없이 매끄러운 번역”(flawlessly smooth translation)¹¹⁾이라는 평이나, 원래 영어로 쓴 소설처럼 “친숙하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Rao 2011)는 평은 언어 때문만은 아니다. 원래 영어로 쓴 것처럼 매끄럽다는 것은 영어가 사용되는 문화권내의 가치관에 적합하다는 뜻으로 다른 언어의 실체·다른 언어가 제 공하는 느낌과 삶의 가능성들, 그 조건대로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지었다(White 1996: 333)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공통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고 특수한 것은 일부 사라지거나 변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해외독자의 기대를 반영, 편집 수준의 ‘다시 쓰기’를 통해 PLAM이라는 작품으로 태어났다.

가치관 변형이라는 과감한 전략을 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 책은 정부나 기관이 아닌 민간 출판 에이전시를 통해 수출과 작품 번역이 이루어졌다. 번역 판권을 산 크노프사는 대형출판사인 랜덤하우스(Random)의 자회사로, 이들의 관심은 한국문화 전달보다는 독자 수용성에 있었다. 김지영은 편집자 및 저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으며, 특히 한국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번역본 독자들을 위한 편집 과정이라고 여기고 번역했다고 밝힌다.¹²⁾ 즉 번역자 개인의 번역에 대한 태도와 출판 주체인 출판사의 독자 우선주의 전략, 그리

고 소설을 수출한 주체가 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과감한 번역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PLAM의 번역에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의 체계도니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번역본 출판사는 출판계에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여기에 번역자의 번역전략이 합해져 다시 쓰기 수준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텍스트 외적인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텍스트 번역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문학 번역의 영역 안에서 가치관 변형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 정치와 사회 상황이 작용함을 보았다. 그 결과 독자에게 가 닿는 번역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자 수용성을 우선시 하는 번역이 과연 잘 된 번역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으며 그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소설이 36개국에 번역되었음을 감안, 본 연구의 주제와 연결할 때 각 언어 혹은 각 번역본의 원본 가치관 변형의 정도가 의문으로 남는다. 아시아 국가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므로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치관은 같은지, 아니면 동일한지가 궁금해진다. 또한 다른 서양국가로의 번역은 어떤지, 원본과 비교 분석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열규 옮김 (2000) 『문화의 패턴』, 서울: 까치. (Benedict, Ruth (1934) *Patterns of Culture*).
- 김종길 (2003) 「한국인의 종교 신앙은 기복적인가」, 김문조 외 『한국인은 누구인가 - 38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파주: 21세기 북스. 84-93.
- 박선영 (2016)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정신분석적 고찰」,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18(2): 40-77.
- 송성자 (1997)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해결중심 가족치료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32: 160-180.
- 이원규 (2003) 「한국인의 종교 신앙은 기복적인가」, 김문조 외 『한국인은 누구인가 - 38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파주: 21세기 북스. 94-103.
- 이형진 (2011)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의 영어 서평에 나타난 문학

11) Falconer, Kelly 'Left Behind' 29. April. 2011. *Times Literary Supplement*. Web. 10. April. 2018.

12) Shin Joon-bong, Yu I-na 'Shin Kyung-sook's "Please Look After Mom"', *Korea Joong Ang Daily*, April 27. 2011.

- 번역 평가의 관점], 『세계문화비교연구』 37: 303-328.
- 이형진 (2016)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39-164.
- 윤선경 (2013) 「문학번역 연구 현황과 과제: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 연구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7(3): 125-145.
- 정명교 (2013) 「세계문화와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비교한국학』 21(2): 11-37.
- 정호정 (2012) 「문학번역의 수용과 평가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255-281.
- 조금호 (2003) 「한국 집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김문조 외 『한국인은 누구인가 - 38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파주: 21세기 북스. 153-171.
- 황태향 (2003) 「자식에 대해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김문조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 38가지 코드로 읽는 우리의 정체성』, 파주: 21세기 북스. 482-499.
- Alvarez, Román et M. Carmen Africa Vidal (1996) 'Translating A Political Act' in Román Alvarez et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
- Baker, Mona (2009)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in Baker Mona (ed.)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89-208.
- Bassnett, Susan (1998) 'Translating Across Cultures.' in S. Hunston (ed.), *Language at Work*,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72-85.
- Carbonell, Ovidio (1996) 'The Exotic Space of Cultural Translation' in Alvarez, Román et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79-98.
- Franco Aixela, Javier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omán Alvarez et M. Carmen 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 Hauser, Gerard A. (1988) Review 'Human Communication as Narration: Toward a Philosophy of Reason, Value, and Ac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August. 347-349.

- Nisbett, Richard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s: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 and Why*, New York: Free Press.
- Savory, Theodore (1954) *The Art of Translation*, London: Jonathan Cape.
- Tahir-Gürçaglar, Sehnaz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s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Hermans Theo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London: St. Jerome, 44-60.
- White, James Boyd (1996) 'On the Virtues of Not Understanding.' in Dingwaney, Anuradha & C. Maier (eds), *Between Languages and Cultur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333-340.

<분석 대상 도서>

신경숙 (2009)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작과 비평.

Kim Chi Young trans (2012)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Vintage Books.

<인터넷 자료>

Corrigan, Maureen (2011) 'Please Look After Mom: A Guilt Trip To The Big City' National Public Radio, 5 April. Available at <https://www.npr.org/2011/04/05/135120998/please-look-after-mom-a-guilt-trip-to-the-big-city>.

Fulton, Bruce (2015) "Translating Korea: Inaugural Lecture of the Young-Bin Min Chair in Korean Literature and Literary Translation". < TANGUN: La Revue des trois Corées>, 5 June. Available at <http://revuetangun.com/2015/06/09/la-traduction-selon-bruce-fulton-en-version-originale-%EB%B8%8C%EB%A4%BC%EC%8A%A4-%ED%92%80%ED%86%A4%EC%97%90-%EB%94%B0%EB%A5%B8-%EB%B2%88%EC%97%AD-%EC%9B%90%EB%B3%B8/>.

Hoffman, Ellen (2017) 'These are Amazon's Picks for Best Books This October'. *Business Inside*, 2 October. Available at <https://www.businessinsider.com/best-books-october-amazon-2017-10>.

- Noack, Lick (2015) 'The World' s languages in 7 maps and charts', *The Washington Post*, 23 April. Available a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5/04/23/the-world-s-languages-in-7-maps-and-charts/?noredirect=on&utm_term=.29d3df8f98f0.
- Rao, Mythili G (2011) 'A Woman Goes Missing in Seoul'. *New York Times*, 11 April.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11/04/03/books/review/book-review-please-look-after-mom-by-kyung-sook-shin.html>

<참고 언론 기사 자료>

- 박중세 「“美 독자 반응, 신기하게도 한국과 같아”」 『조선일보』 2011년 4월 11일.
- 심성미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해외선 장르 작품 인기인데... 국내문단은 B급 문학 취급”」, 『한국경제』 2018년 7월 27일.
- 안선재 「외국독자들은 한국문학을 어떻게 읽을까: [창비 주간논평] 한국문학 번역의 과제들」, 『프리티안』 2007년 5월 16일.
- 정현진 「박노자 “한국 사회, 경쟁 멈춰야 평화 이룬다”」, 『가톨릭 뉴스』 2017년 7월 24일.
- 허연 「해외에 한국소설 파는 돈키호테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매일경제』 2017년 10월 13일.
- Shin Joon-bong, Yu I-na 'Shin Kyung-sook's "Please Look After Mom"', *Korea Joong Ang Daily*, April 27, 2011.

[Abstract]

**From the Cyclical Values to the Linear Values in Shin Kyung Sook's
Translated Book *Please Look After Mom***

Lee, Kang-Su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values of source text and those of target text in an effort to find the possible reason for the unexpected and surprisingly high acceptance of *Please Look After Mom* among American readers. PLAM is a story of a typical Korean mother who is lost in a big city. Searching their mother with dementia, the grown-up children and the father recall her life of dedication and sacrifice for them and feel guilty about their selfishness. The story touched a lot of target readers and became a bestseller. As an ordinary person, the protagonist practices the multi-layered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the local folk belief unconsciously in daily life. These values are so deeply related together like a circle. But for the target readers, the straight values of reasoning and logic a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orld. Therefo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TT readers have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Koreaness in ST, the translator changes the expressions based on the complex values to the terms of simple and straight values of Westerners through the strategy of domestication. As a result, the TT readers read PLAM as if it was written in English without any ideological barrier to get the impression of the intimate spare in it.

▶ Keywords: cultural hegemony, Korean traditional values, Western values, acceptability, rewriting

▶ 주제어: 문화적 헤게모니,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서양의 가치관, 수용성, 다시 쓰기

이강선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대우교수

sunrisin@hanmail.net

관심분야: 소설번역, 동화번역, 영미소설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